

# 전시와 축제의 한마당으로 초대합니다

## Invitations of Exhibitions and Festivals

김현미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일오삼  
by Kim, Hyun-mi, KIRA

전시와 축제가 어우러진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가 '제로 혁명; 친환경 건축을 디자인한다' 라는 주제 아래 2009년 10월 7일(수)부터 10월11일(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된다.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친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건축사 협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바로 우리 집안의 행사이며 축제인 것이다.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을 통하여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며 대한건축사협회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클랄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내부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한 패배주의(?)와 무관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다른 전시회에 비하여 인지도도 떨어지고 전시회 구성도 풍성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비단 필자만이 드는 생각

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대한건축사협회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건축사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며, 그들(바로 우리)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도 말이다.

건축 전문가단체가 주최하고, 건축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고,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관람하는 행사로 『한국건축산업대전』이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타 전시회에 비하여 뭔가 차별화 되어야하지 않을까? 전시회 사업위원을 하면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타 전시회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려고 고군분투 해보아도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은 녹록치 않다. 좀 더 나은 전시회와 볼거리가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해보지만 부딪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요즘 들어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세계경기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건축분야의 모든 당사자들 또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전시회 준비에 모든 해당 업체들의 어려움이 적나라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만 핑계하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인가?

특히 건축사들의 위상 제고와 건축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는 전시회라면 모든 건축사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다른 단체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 집안의 행사인데 우리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또한 앞으로 이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몇몇의 사업위원들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건축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건축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 많다. 일반인은 차치하고라도 다른 전문가들조차 건축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 적잖이 당혹한 적이 있다. 필자뿐 아니라 많은 건축사들이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대한건축사협회를 외부에 알리고 건축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날이 새로운 설계기법과 공법, 자재가 쏟아져 나오고 급격히 변화하는 건축시장에서 가장 민감하여야 할 건축사들이 적당히 눈과 귀를 닫고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변화하는 현실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입지는 견고해지고 건축시장뿐 아니라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시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만 한다면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건축사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고치면서 발전해 나갈 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들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누군가는 자고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업적이 날로 날로 줄어들고 있음을 접하게 된다. 씩씩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이 외부의 영향도 있었지만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는 무엇인지 재고해보아야 할 때이다.

지금은 전국 건축사들의 협력과 단합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람할 뿐 아니라 참여사들의 자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성원할 때 이 전시회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한다. 그럼으로써 전시 참여사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내년, 내 후년에는 조금 더 풍성하고 알찬 전시회와 축제의 장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우리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건축사들은 물론이고 모든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 『한국건축산업대

전』이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전시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좀 더 나은 미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는 데에 일조를 하기 바란다.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시회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동시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첫째, 친환경 건축사 교육\_ '친환경과 미래건축'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정책과 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건축사들의 이해증진 및 관련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문교육이다. (소주제 : 패시브건축, 친환경건축과 디자인, BIM과 건축의 미래)

둘째, 전국 건축사 미술전\_ 대한건축사협회 미술동호회의 작품 전시로 건축사의 정서가 순수미술에 대한 일상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때 보다 좋은 건축을 창조하게 되는 예술적 혼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셋째, 친환경 건축 특별포럼\_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위원회 주관으로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설계의 기본 틀을 확립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건축물을 널리 알리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넷째, 각종 세미나...

-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강 녹색성장 산업발전 세미나 : 10/8(목)
- 한국경제TV 부동산 포럼 : 10/7(수)
- (사)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초고층 및 대규모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내장재 화재안전성 연구발표 : 10/9(금)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CM연구회 강연 및 토론회 : 10/7(수)

다섯째, 체험 이벤트 신나는 건축체험학교 : 독일라이트너사와 공동 개발한 학습교재용 조립식 모형블럭으로 실제크기의 1:10 축소모형인 'BAUMI'로 기초조형 실습 · 공간구성 능력 강화 · 구조체의 역학이론 이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자재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건축사들과 건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국민 홍보
- 건축전문가들 간의 건축산업 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건축문화산업 기술력 강화 및 활성화 지원
- 국내외 새로운 시장개척 및 활성화 지원

이라는 목적으로 개최되는 한국건축산업대전2009에 건축사들과 건축 관계자 여러분을 초대한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kaff.biz](http://www.kaff.biz)